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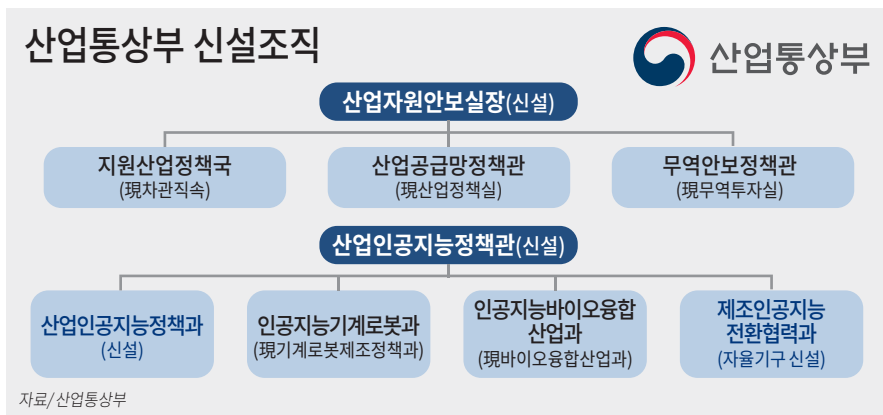
산업부, 12年來 최대폭 조직개편
분산 경제·산업 안보 기능 일원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새로 만들어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 기능 강화
30일부터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시행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출범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폭 조직 재설계다.

산업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우선 부처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차관 직속이던 자



원산업 기능과 산업정책실의 산업공급망, 무역투자실의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안보 기능의 정규 실 신설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AI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

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둔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과 단위로 한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존 산업AI 혁신과와 첨단민군혁신지원과가 정규화되면서 새롭게 구성된다. 기존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는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개편돼 AI 기능을 결합한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를 정규 직제화한다. 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지원산업정책관에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 소속이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산업정책실은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간 연계를 전담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되며, 산업인공지능정책관과 첨단산업정책관을 배치해 제조AX,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특히 규제개혁과 규

제샌드박스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해 현장 규제 혁파에 나선다.

이밖에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과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이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이 신설된 이후 21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7실(대변인 포함), 2국·20관, 74과 체제, 정원 1250명으로 재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기능 이관 이후와 비교해 1실, 1관, 4과가 늘었고, 정원은 36명 증원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獨 ZF 자율주행 사업 인수… 전장 키운다

하만, 2.6조 투입 ADAS 사업 인수
ZF, 100년 이상 역사 업계 1위 입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삼성전자는 23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이하 ZF)’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하며, 고성장 중인 전장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ZF ADAS 사업 인수는 15억 유로(한화 약 2조 6000억원) 규모로, 삼성전자가 2017년 9조원가량을 투입해 하만을 인수한지 8년 만의 전장사업 인수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공조(독일 플랫폼그룹), 전장(독일 ZF ADAS 사업), 오디오(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 디지털헬스(미국 젤스) 분야 사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M&A를 성사시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마티아스 미드라이히(왼쪽부터) ZF CEO,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 크리스천 소봇가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부문 사장이 23일 독일 ZF의 ADAS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올레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나 전장 사업을 논의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시작해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새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하만이 인수하는 ZF ADAS 사업은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하고,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차량용 전방카메라와 ADAS 컨트롤러 등 자동차 주행

보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DAS 관련 기술과 제품을 확보해 고성장하고 있는 ADA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DAS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은 안전성,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2025년 62조6000억원에서 2030년 97조4000억원, 2035년 189조3000억원으로, 2035년까지 연평균 1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사업부문 크리스천 소봇가 사장은 “이번 인수로 ADAS 사업을 하만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시장에서 중앙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ADAS 사업 인수 절차는 2026년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청년 연봉 3000만원대 중장년층은 4456만원

데이터처, 2024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15~39세 청년층 11.5% 주택 소유

지난해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를 기록했다.

15~39세 청년층의 11.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미소유자보다 2배 가까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3045만 원으로 전년(2950만 원)보다 3.2% 늘었다.

중장년층(40~64세)은 4456만 원, 노년층(65세 이상)은 1973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6%, 6.9%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 원 미만’ 비중이 각각 31.8%, 52.8%로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은 ‘1000만~3000만 원 미만’ 구간이 26.9%로 가장 많았다. 연령구간별로는 45~4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494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54세(4807만 원), 40~44세(4734만 원), 55~59세(4535만 원) 순이었다.

소득 있음 비중은 30~34세가 89.3%로 가장 컸다. 이어 35~39세(86.2%), 40대(84.7%), 50~54세(83.0%)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 주택소유자의 평균소득은 5034만 원으로 미소유자(2721만 원)보다 1.9배 많았다. 주택소유자의 평균소득은 중장년층 5433만 원, 노년층 2299만 원으로 미소유자(3540만 원, 1608만 원)보다 각각 1.5배, 1.4배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모든 생애단계에서 높았다. 청년층 남성의 연간 평균소득은 청년층 여성보다 1.4배 많았고, 중장년층은 1.9배, 노년층은 2.2배 차이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초·중·고 학생 AI 기초소양 교육… 서·논술 평가 확대

서울시교육청, AI 교육 종합계획
내년 고1 학년까지 총 3만명 실시
2027년 5만명 규모로 확대 계획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혁신과 함께 윤리·안전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AI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수업 혁신, 핵심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AI 교육 청사진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런 내용을 담

은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의 AI 책임교육을 토대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인재 양성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원 체제와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우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AI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를 수업에 적용하고, 진

단검사를 거쳐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진단검사는 2025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3만명, 2027년에는 5만명 규모로 늘려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도 강화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는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AI 기반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학

생을 위한 AI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인 ‘채움아이’를 개발하고, 2025년 6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 110개교로 확대, 2027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I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대학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급별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2026년 AI교육센터 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현 서울시교육청 청사 1~2층에 센터를 조성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TSMC, 첨단 공정 해외수출 ‘암초’… 삼성·SK 희비 엇갈려

대만 반도체 규제 움직임

2nm 등 첨단공정 수출제한 검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청신호’
SK하이닉스, 생산일정 등 영향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둔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 수주 확대에 ‘청신호’가 커졌다. 대만 정부가 TSMC의 첨단 공정 해외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2nm(나노미터·10억분의1m) 등 첨단 공정 수주 물량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TSMC의 최첨단 생산 공정보다 두 세대 뒤 떨어진 기술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3nm 이하 첨단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파운드리 분야의 대형 고객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TSMC가 대만 정부 규제로 인해 미국 공장에서 구형 공장만 써야 할 경우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이번에 대만 정부가 내놓은 수출 정책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은 ‘N-2 규정’으로 대만의 최첨단 기술보다 두 세대 뒤쳐진 공정 기술만 해외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앞서 대만 당국은 N-1 규정을 고수해 TSMC가 최첨단 제조 공정보다 최소 한 세대 뒤쳐진 모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세대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TSMC는 자사의 최첨단 기술보다 2~4년 뒤쳐진 노드만 수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TSMC가 자국에서 1.2nm 또는 1.4나노급 제조 공정을 개발하더라도 해외 공장에서는 1.6nm급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

정이 시행된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적극 건설 중인 TSMC의 확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내 첨단 공정 생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가동 예정으로 2nm 게이

트올라운드(GAA) 공정 생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 공사율도 3분기 말 기준 93.6%다.

특히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내년 2분기부터 2027년까지 월 1만5000장 이상의 2n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들일 계획이다. 앞서 수주한 테슬라 등 첨단 AI반도체를 해당 팹에서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는 지난 7월 차세대 완전자율주행칩 AI6를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맡기기로 하고 16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TSMC 첨단 공정 수출 통제 움직임이 SK하이닉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파운드리 경쟁사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칩의 패키징을 TSMC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TSMC의 미국 공장 확장이 기술 규제로 제약을

받을 경우 AI칩 전반의 생산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학과 교수는 “TSMC가 2nm 공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만큼 미국 내 공정을 구축할 경우 기술 유출을 우려해 대만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nm 공정은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산 안정성과 수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SK하이닉스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HBM은 TSMC의 공정을 거쳐 박테크 고객사에 공급되는 구조인 만큼 TSMC의 미국 내 공정 활용이 제한될 경우 대만 공장에 의존해야 하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DDX사업 ‘경쟁입찰’ 결론

(한국형 차기 구축함)

HD현대·한화 ‘2라운드’ 예고

현 단계에선 우열 단정하기 어려워
경쟁입찰로 방사청 부담가중 지적도

1년 6개월 이상 표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정리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선정 방식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간 입장차가 커지며 논의가 장기화됐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관례이자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하며 KDDX 개념설계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사 문제 제기와 보안사고로 수의계약 방식이 방위사업청에 과도한 부담이 됐다고 본다. 대형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사실상 지정할 경우 분

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설계도 장보고·III 사례가 있었지만 상세설계 단계의 비효율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단 속에 수의계약과 공동설계가 배제됐고,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역시 특정 업체가 아닌 전력화 지연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방위사업청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입찰이 드문 만큼 평가 항목·배점·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계약까지의 절차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내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논란을 피하고 두 업체에 동일한 준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부담을 분산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단계에서는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력과 건조 실적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호배분 방식으로 조선소를 함께 유지하는 전략도 활용됐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합정은 시리즈로 건조되는 만큼 상세설계와 생산설계가 생산 야드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설계를 나눠 맡기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위험한 카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KB금융그룹

국민의 자산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자영업자 대출 1072조… 비은행 연체율 3.61% ‘빨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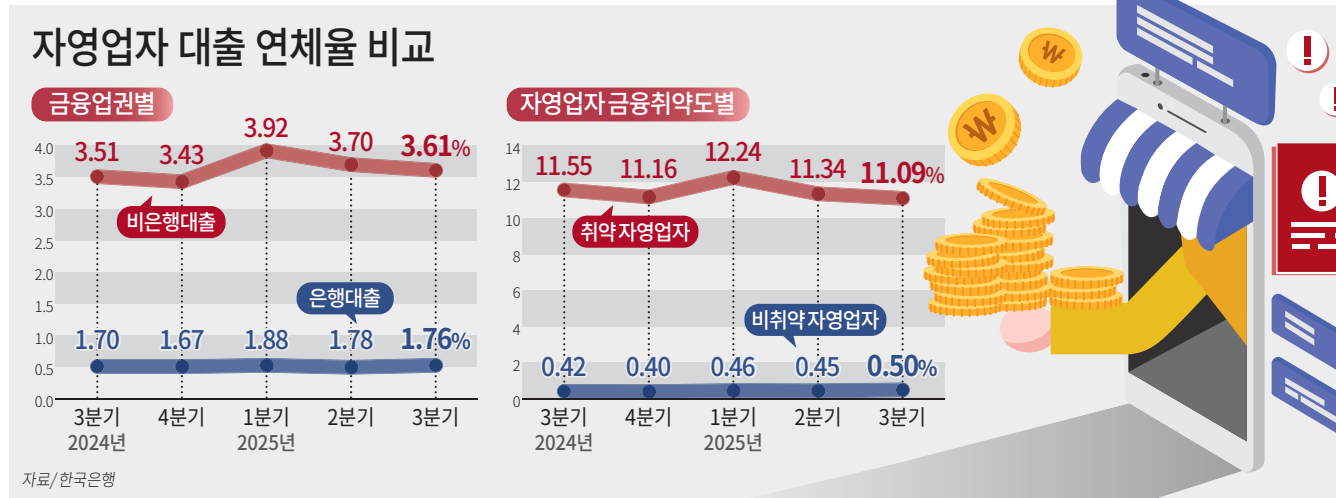
신용 리스크 확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09%
60대 이상 대출 389.6조로 확대
고령층 취약차주 비중 15.2%
부동산업 대출 비중 높아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1072조2000억원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지만, 비은행 연체율(3.61%)이 은행(0.53%)을 크게 웃돌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09%에 달해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높지만 내려오는 흐름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76%)은 1분기 말(1.88%)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장기평균(2012년 이후 1.41%)을 여전히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리스크가 집중된 구간은 비은행권과 취약차주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3.61%)이 은행(0.53%)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11.09%)은 비취약(0.50%)과 큰 격차를 보였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쏠림’이 두드러진다. 60대 이상(고연령)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 말 389조6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이후 차주와 대출이 큰 폭 늘어 전체

자영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고연령층은 연체율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60대 이상 연체율은 1.63%로 전체 평균(1.76%)을 소폭 하회했고 40대 연체율(2.0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연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수준으로 최근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향후 이들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은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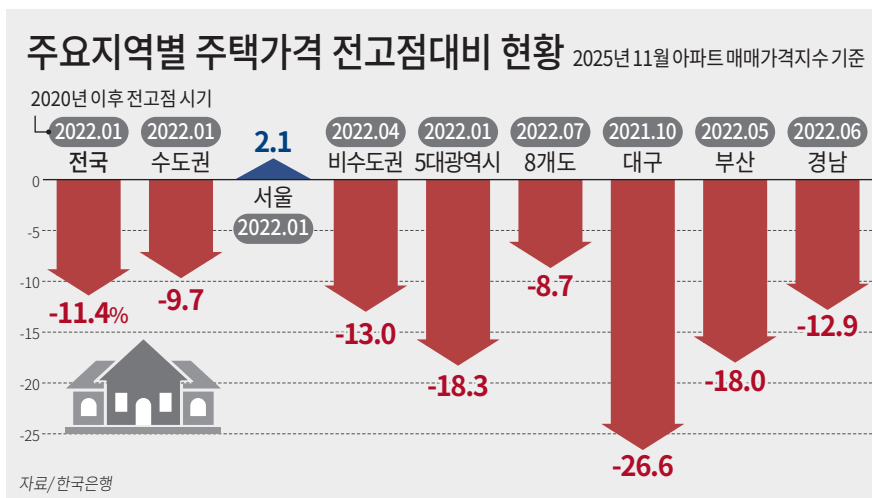
서울집값 상승 지속… 아파트 시총 43%·가계대출 34% 집중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상승·비수도권 하락 지속
대구 -26.6%·부산 -18.0% 침체 심화
월세 비중 60.2%로 임대차 월세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서울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43.3%, 서울가계대출 비중은 34.2%로 높아져 자산·신용의 ‘서울 쏠림’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부상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이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지역 간 주택시장 차별화가 뚜렷했다.



서울로의 집중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의 43.3%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서울가계대출 잔액의 비중도 전체의 34.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화가 서울 등 선호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 강화와 지역 간

인구 이동 같은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관련 세제 등 규제 강화 이후 선호지역 매입수요가 커진 가운데, 서울 주택에 대한 외국인 매입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 중심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이어지

면서 수도권 주택수요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수도권 집값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축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가운데 대구(-26.6%), 부산(-18.0%) 등 5대광역시의 고점 대비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20% 내외에 달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화’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월세(준전세·준월세·월세 포함) 비중은 60.2%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한 계약일 기준 집계로, 신고일 기준 2025년 10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63.5%)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불안이 이어지면서 주택수요 관리 및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를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월 15일)’이 발표됐다. 해당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서울 4개구에서 25개구 전역), 주택가격 구간별 주담대 한도 조정, 규제지역·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적용 강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에 대응해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부문의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 1면 ‘성장판 닫힌 T커머스…’서 계속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금융불안 ‘주의’… 단기안정·중기부담 공존

금융 불균형 누적

FSI 15.0 하락에도 주의단계 유지
FVI 45.4 상승, 중기 취약성 누적
가계신용 1968조·환율 변동성 불안

금융불안지수(FSI)가 11월 15.0으로 ‘주의단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3분기 45.4로 장기평균(45.7) 수준에 근접해, 단기 불안 완화와 별개로 취약성 누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실물경기가 개선세를 보였다.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

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가·금리·환율 등 주요 지표가 크게 움직여 시장 변동성이 높은 점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는 점은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FSI는 금융시장·실물·대외·은행·비은행 등 5개 부문 20개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하는 단기 불안 지표다. 주의·위험 단계 임계치는 각각 12와 24로 설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FSI는 2025년 11월 15.0(주의단계)으로, 6월 18.6대비 ‘상당 폭 하락’했다.

FVI는 신용·자산가격·금융기관 복원력 등 3개 평가요소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하는 중장기 취약성 지표다. FVI는 2025년 3분기 45.4로 1분기(43.9) 대비 소폭 상승했고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

가계부문에서는 3분기 중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계신용이 10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가계대출 월별 평균 증가폭은 2025년 1~3월 1조3000억원에서 4~6월 5억9000억원으로 커졌다가 7~9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한 뒤, 10월 4조9000억원·11월 4조1000억원으로 재확대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3분기 말 141.1%(추정치)로 1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비중은 금융여건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3분기 말 1.

00%(은행 0.39%, 비은행 2.31%)로 1분기 말 대비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축적된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부문 간 자금흐름 및 익스포저 구조 변화를 점검하고 위기대응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에도 손실흡수력 유지·확충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도 “주가 급등락과 원화 약세 지속 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취약부문 신용위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대내외 여건과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해 필요시 정부와 정책공조 및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주형 기자

“구조적 악재 겹쳐 비용 효율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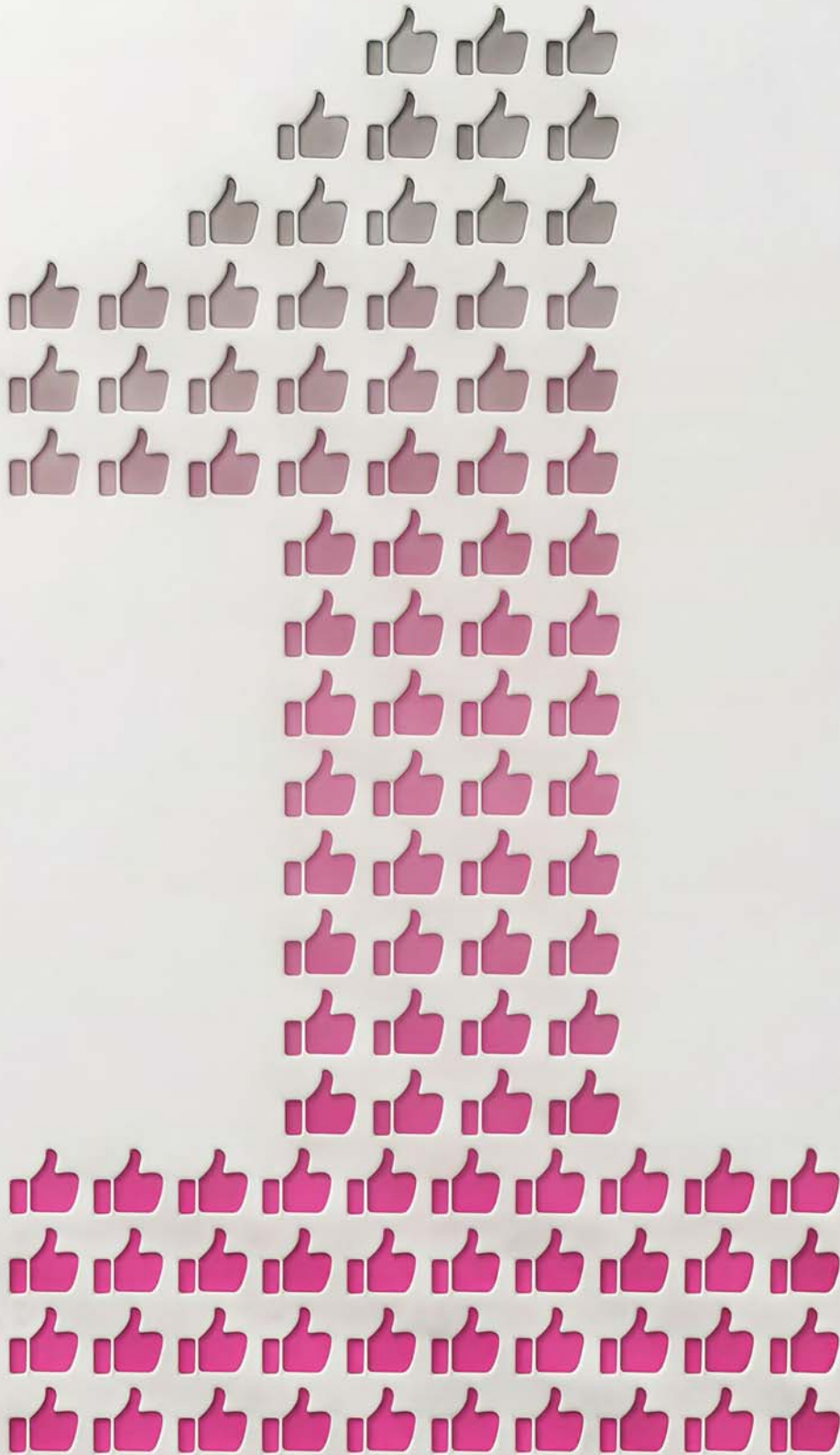
티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티알엔) 합산 취급고는 2021년 4조2697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4조3000억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TV 시청 인구 감소, 송출수수료 인상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업계는 비용 효율화 전략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화면 비율 규제 완화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티커머스는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가려야 해 상품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화면 비율 조정은 TV홈쇼핑사와의 마찰도 적고, 가이드라인만 수정하면 즉시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초고속인터넷 / IPTV / 이동전화 3개 부문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NPS) 1위



고객님의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유플러스가 고객이 추천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생중계로 국민께 알려” ‘공개약속’ 된 업무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6개월 후 업무보고도 생중계 예정
李 대통령 부처 지시사항 중점 관리
이행 여부 국정평가 주 요인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여러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생중계’ 업무보고는 내년에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논란에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 갖고 있는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업무보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된다.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 기대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과 23일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민생·경제·사법·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 속 공약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논란도 불러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이 공개 질타를 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생중계 업무보고의 책임은 이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우추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제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범죄수익 환수 문제, 탈모약 건강보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공개 지시를 했다.

생중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각종 지시는 일종의 ‘공개 약속’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후속 관리·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돼버린, 지시 사항 이행 여부가 국정 평가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서다.

한편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킨 이 대통령은 마지막엔 칭찬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제 아내가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석

참석 상임위, 5곳 → 6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규정 삭제
‘재판 중인 사건 예외’ 내용 추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 이전, 국토 균형발전·부산 도약 중대한 계기될 것”

李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
“경제·산업·물류 중심 발돋움 지원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인재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한 데 대해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이전에 맞춰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오늘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며 “가덕신공항의 본궤도 안착, 부산의 K-문화, 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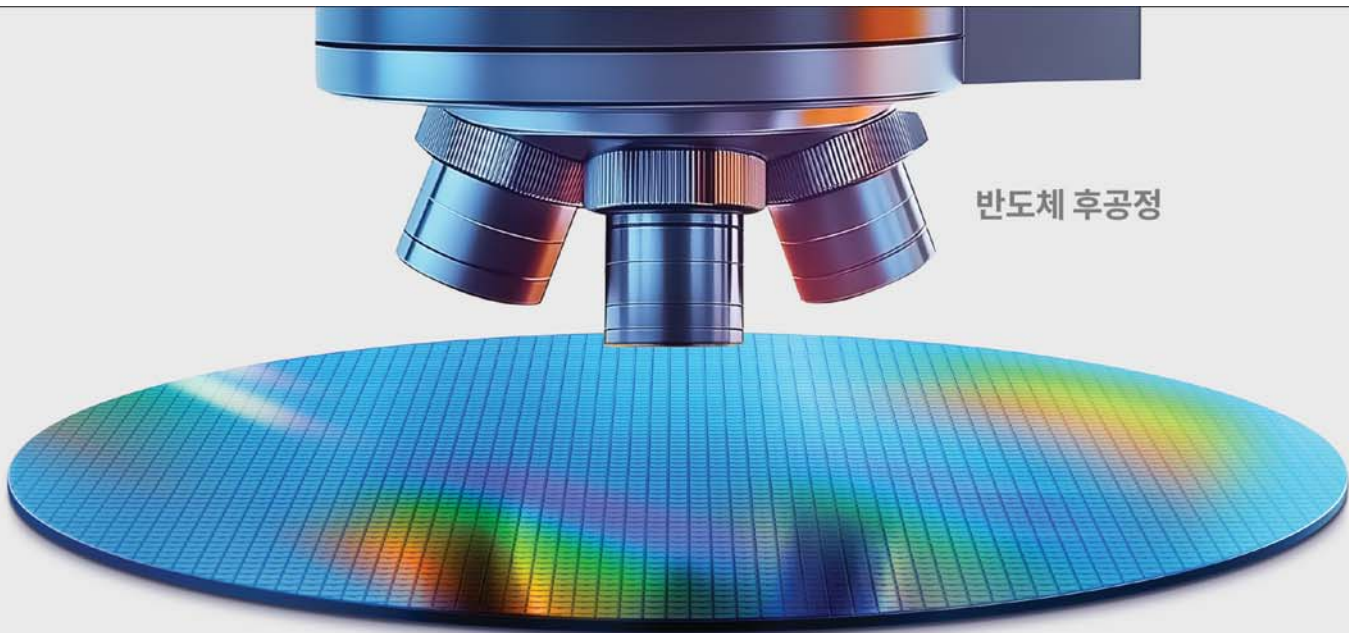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엉망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 법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급격히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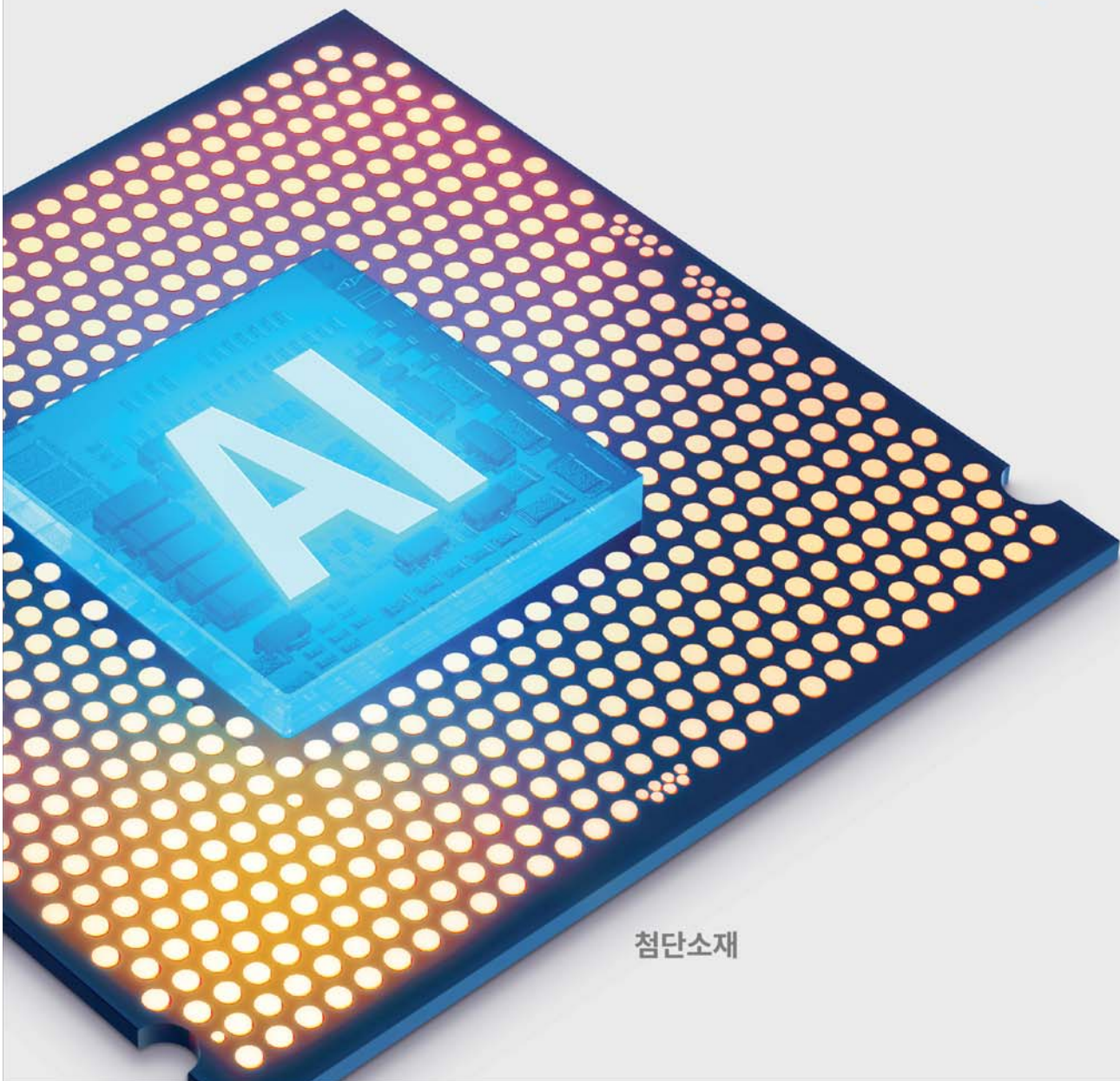
/박태홍 기자 pth7285@

두산테스나



HELLO [ADVANCED] TOMORROW

우리가만드는건
기술의 혁신을 넘은, 미래 산업의 가능성입니다.
두산은 첨단소재와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AI 시대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첨단 기술의 한계가 없는 내일, 두산이 만들어 갑니다.



DOOSAN

‘대출 제동’ 저축은행, 유가증권 확대로 수익처 다변화

작년 말 유가증권 투자액 8.9조
지난 9월 12.5조 투자잔액 급증

SBI·웰컴 등 대형사 투자 확대
한성·페퍼 등 중소형사는 줄어
‘투자한도 제한’에 투자 양극화

주요 저축은행이 대출 사업 대신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형사들은 규제로 인해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사 저축은행의 지난 9월 기준 유가증권 투자 잔액은 1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8조9000억원, 올해 3월 9조1000억원 규모에 머물던 유가증권 투자금액은 6월 10조400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뒤 9월 12조5000억원까지 불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6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제1·2금융권 모두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 사업 확장에 제약이 걸린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투자처인 증권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유가증권 투자 역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 유가증권 평균 잔액이 8742억원, 웰컴저축은행은 5485억원, 애뮤온저축은행 4376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527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중심의 중소형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대명저축은행은 3분기 기준 유가증권 평균 잔액이 46억원에 그쳤다. 용창저축은행은 95억원, 스타저축은행은 162억원, 대백저축은행은 182억원으로 확인됐다. 투자를 확대해도 대형사 투자액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 투자를 오히려 줄인 곳도 있다. 한성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액이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202억원)보다 잔액이 줄어 들었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유가증권 투자액을 2028억원에서 1955억원으로 줄였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유가증권 투자 양극화 배경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 규정이 자리한다. 현재 당국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많은 대형사들은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대안책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자기자본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길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증권 시장의 변동성으로 유가증권 투자 확대가 또 다른 부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원 다각화 일환으로 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면서도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시장 등락에 따라 손익변동성이 높아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주담대 확정일자 정보연계 인터넷은행으로 확대

국토부, 카뱅·토스 등과 업무협약
내년 연계업무 완료기관 순차 적용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돼 한도에 반영케 된다.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권 설정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유투이미지

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능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도입해 11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바로 7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

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임대인이 주택담보를 미리 받아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출을 해주기전 한번 연계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규제완화 연장

금융위, 내년 6월까지 연장 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능하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농·수협 등 상호금융 PF대출 20% 제한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안승진 기자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직원의 영업목적 일탈

신한카드에서도 약 1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약 19만건(19만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일부 내부 직원의 영업 목적 일탈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로 파악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화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겨울간식차’.

/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서 ‘겨울 간식차’ 운영

한화 건설부문은 겨울철 한파 속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겨울 간식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과 어묵으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간식차에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메시지도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월 말까지 현장별로 간식차를 순차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현장에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우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장소장, 협력사 직원, 일용직 근로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에서 간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LGD, CES서 240Hz RGB OLED 패널 공개 “색 번짐·왜곡 줄인 모니터 신기술”

RGB 스트라이프 구조로 화질 개선
고주사율에도 선명한 화면 구현
게이밍·전문가용 시장 동시 겨냥
OLED 모니터 기술 리더십 강화

LGD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240Hz RGB(레드·그린·블루) 스트라이프 구조가 적용된 모니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선보인다.

LGD디스플레이는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RGB 스트라이프 구조로 240Hz 고주사율을 구현한 27인치 4K 모니터용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RGB 스트라이프 구조는 빛의 삼원색인 RGB 서브픽셀을 나란히 배열한 구조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색 번짐, 색 프린지 등 왜곡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전에도 RGB 스트라이프 방식의 OLED 패널은 있었지만 최고 주사율이 60Hz 수준에 그쳐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었다.

LGD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RGB 스트라이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사율을 240Hz까지 끌어올린 최초의 제품으로, 특화 기술인 DFR을 적용해 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모드(UHD 240Hz)와 고주사율 모드(FHD 480Hz)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고주사율을 바탕으로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 게임 등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 윈도우 등 운영체제 및 폰트 엔진



240Hz RGB 스트라이프 구조가 적용된 LG디스플레이 모니터용 OLED 패널. /LGD디스플레이

에 최적화돼 가독성 및 색 정확도가 높다. 또 160ppi(1인치당 픽셀 수)의 높은 픽셀 밀도로 섬세한 표현력도 갖췄다.

LGD디스플레이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 및 전문가용 모니터 패널에 신규 픽셀 구조를 선도입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CES 2026에서 적극 홍보하여 고객사 및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존 하이엔드 게이밍 OLED 모니터 패널은 주로 백색 소자가 포함된 RGBW 구조나, RGB 픽셀을 삼각형으로 배치한 트라이앵글 구조를 사용해 왔다.

LGD디스플레이는 모니터 환경에 최적화된 신규 패턴을 개발하고, 픽셀에서 빛이 나오는 면적 비율(개구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끝에 RGB 스트라이프 구조와 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LGD디스플레이는 전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시장의 약 30%를 양산하며 적극적으로 하이엔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현재 양산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최고 주사율, 응답속도, 해상도 등 주요 스펙에서 모두 세계 최고 타이틀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D디스플레이이현우대행사업부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OLED 모니터 패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기술, 고객사가 원하는 기술, 사업성 있는 기술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류재철 “고객 중심 실행력으로 격차 만든다” (LG전자 신임 CEO)

신년 메시지 통해 성장 전략 제시
속도·AI·B2B 중심 경쟁력 강화 주문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본원적 경쟁력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며 LG전자의 전략과 실행력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고객 중심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 속도로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어 온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다시 한번 경쟁의 판을 바꾸자.”

류재철 LG전자 신임 CEO(사진)는 23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위기 속에 더 큰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아울러 류 CEO는 5대 핵심 과제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가속화 ▲지역 포트폴리오 건전화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제시했다.

먼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키워드로 속도를 꼽았다. 류 CEO는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은 속도”라며 “제품 리더십 측면에선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닝 테크’를 빠르게 사업화해 시장의 판을 바꾸고,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객가치, 사업 잠재력, 기술 경쟁력 관점에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의미다.

다음으로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기업간거래(B2B)·솔루션·소비자직접판매(D2C)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웠다. 그는 “상업용 냉난방공조(CAC)·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등의 B2B 사업, 웹OS와 같이 디바이스와 연계해 사업 영역을 넓히는 솔루션 사업, 구독·온라인브랜드샵(OBS) 등 고객 접점을 확보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D2C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 “고객사 온라인 주문·조회 한번에”

‘마이 포스코’ 통해 업무 편의성 강화

포스코가 고객사들을 위한 제품 주문 디지털 플랫폼을 개편했다.

포스코는 최근 기존 제품 홍보 페이지와 온라인 주문·출하 채널(e-Sales)을 통합한 ‘마이 포스코(My POSCO)’를 공식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올해 제작과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제품 정보 제공, 업무 효율,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제품 카탈로그와 인증서 등을 한 곳에 모아 정보 접근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또 제품·산업 분류와 키워드 검색 기능을 도입해 주요 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색 기능을 도입해 주요 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건설·에너지·조선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철강 소재·부품 정보를 3D 콘텐츠로 제공해 용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제품별 제조 공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철강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포스코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사는 플랫폼에서 주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주문·생산·출하 단계별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앱도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삼성SDI,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본격화

KGM과 손잡고 배터리팩 공동 개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적용 추진
차세대 전기차 탑재·사업화 협력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업체 KGM빌리티(KGM)와 손잡고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 개발에 나선다. 원통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성SDI와 KGM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M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셀을 적용한 배터리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도 병행한다.

공동 개발된 배터리팩은 향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비롯해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확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22일 KGM타워에서 열린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익규 삼성SDI 소형사업부장 부사장(왼쪽 세번째)과 광정현 KGM 사업전략부부장 사장(왼쪽 두번째)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I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SDI는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소재인 SCN(실리콘탄소노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이고 수명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탭리스(Tabless) 구조를 적용해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함으로써 고출력과 급속 충전 성능을 강화했다.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 신뢰성도 높였다.

삼성SDI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동시에,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

‘더 퍼스트룩’ 예고 영상 공개
전 제품·서비스에 AI 통합

삼성전자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을 통합해, 고객의 AI 경험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삼성전자는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2026’ 개최를 앞두고, 행사의 주제를 알리는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 퍼스트룩 2026의 주제는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다.

예고 영상은 다채로운 빛과 선을 활용해 더 퍼스트룩에서 공개될 신제품의 실루엣을 형상화하며 행사의 기대감을 높인다. 영상 속 빛과 선은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AI 기술을 상징한다. 영상 말미에는 제품을 감췄던 빛이 행사

가 열릴 라스베이거스 원 호텔에서 퍼져 나가며 이번 행사의 주제가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CES 2026’ 개막 이틀 전인 오는 1월 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원 호텔에서 발표 행사를 열고 더 퍼스트룩 2026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후 1월 7일까지 4일간 전시와 기술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 부문장)을 비롯해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용석우 사장, DA사업부장 김철기 부사장이 무대에 올라 사업부문별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삼성 기술 포럼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AI, 가전, 디자인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조선업계, 고부가 선박 수주 순항…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삼성重 올해 수주목표 조기 달성
한화오션 유럽 등서 대규모 계약
HD현대 NYK 등 글로벌 협력 강화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 선박인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으로 LNG선 발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수요 확대 기대까지 겹치면서 조선업계의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영국 드루리(Drewry) 등 해운 분석 기관에 따르면 내년 발주를 이끌 선종은 LNG 운반선으로 2030년까지 약 250척가량의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을 앞세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



한화오션이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인 SK해운社の ‘레브레사(LEBRETHAH)’호 운항 모습. /한화오션

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7430억원에 수주했다. 이로써 올해 조선 부문 수주 실적은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넘어섰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삼성중공업의 올해 LNG 운반선 누적 수주 규모는 9척이다.

한화오션도 LNG선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총 2조5891억원 규모의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건조되는 고수익 선박으로, 구매·설계·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 역시 LNG 운반선 수주 확대에 나섰다. HD현대는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한 데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일본 해운사 NYK와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는 최종 계약에 앞서 계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번 건은 확정 물량 4척과 추가 옵션 4척을 포함해 최대 8척 규모다. 선박 1척당 가격은 약 2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LNG 운반선 발주 환경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

으로 주요 LNG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고 있고 노후 LNG 선대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주 여건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경우 그동안 미뤄졌던 LNG 운반선 확보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카타르의 선단 교체 수요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대 100척 수준의 LNG 운반선 추가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규 LNG 프로젝트의 생산 개시가 잇따르면서 LNG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LNG 운반선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생산 설비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LNG선 수요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HJ重-LIG-HD현대, 전투용 USV 개발 맞손

(무인수상정)

컨소시엄 통해 국기연 과제 수주
HJ重, USV 플랫폼 설계·제작 맡아

HJ중공업이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의 통합제어 및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투용 USV 통합제어·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과제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의 설계·건조를 위한 과제 협약도 국기연과 체결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탐승원 없이 원격 조종 또는 자율운항으로 해상에서 탐색·감시·정찰 및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정이다.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임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해감-X 조감도. /LIG넥스원

수행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향후 해양 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목적이다.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의 핵심 축이 될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도 평가된다.

LIG-HD-HJ 컨소시엄은 이번 과제를 통해 통합제어체계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 플랫폼을 건조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무인수상정 플랫폼의 설계·제작을 맡고, LIG넥스원은 플랫폼과 핵심 구성품을 통합하는 통합제어체계,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체계 개발을 통해 성능 검증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무인수상함정 개발과 유무인 전력의 통합 운용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고성능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K-방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오션,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EPC 도급 계약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 사업 확장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행하며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 몫은 1조9716억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쪽 해역에 39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도해 왔으며, 한국중부발전·현대건설·SK이티닉스가 주주로 참여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한화오션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주선기관으로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선정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는 지분출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PF가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산

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저케이블,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장(사장)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해양 신재생 사업 일괄도급)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삼성重, LNG 운반선 2척 7430억 계약

누적 132척·74억달러 규모 수주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7430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선박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운반선 9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 1기 등 총 74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조선 부문은 선종 포트폴리오를 다변

화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며 올해 66억달러를 수주, 목표치(58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해양생산설비는 예비작업의 후속 절차와 신조 1기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이남까지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2척(283억달러)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충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LS전선, ‘LSEVK 풋옵션 이행’ 반소 제기

케이스톤파트너스 소송전 본격화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LS전선은 해당 사안이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메이사, 97억 규모 프리 IPO 유치 성공

KAI, 전략적 투자자 참여… 2대 주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드론·위성 공간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메이사가 97억 원 규모의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포함한 메이사의 누적 투

자유치 금액은 350억 원에 달한다. 메이사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현재 메이사의 2대 주주로, 지금까지 총 80억 원을 투자하며 국방 소프트웨어와 우주 사업 전반에서 기술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유혜은 기자

“협력사와 지속가능 파트너십 유지”

SKT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

시너지·파트너십 부문 30개社 수상
수상기업에 무이자 대출 등 제공

SK텔레콤이 지난 22일 ‘2025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열고 협력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동반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시상식에서는 ‘시너지’와 ‘파트너십’ 두 부문에서 총 30개 기업이 수상했다.

시너지 부문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와 B2B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한 23개 기업이 선정됐다. 파트너십 부문에서는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ESG 경영 체계 구축에 나선 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 기업에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과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지난 22일 개최된 ‘2025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KT

동반성장펀드 운영, 채용 및 교육 지원, ESG 경영 체계 구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시너지 부문 수상으로 6년 연속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된 소프트웨어의 구본철 대표이사는 “협력을 통해 고객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SK텔레

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중한 동반자가 돼 준 파트너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20년간 함께 쌓아온 동반 성장의 역사를 앞으로도 더 멀리, 그리고 함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 온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부스터스’ 통해 792건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현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내년 상반기 시즌5 참여자 모집

LG유플러스가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부스터스 시즌4’를 통해 총 792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적 조회수 2900만 회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스터스’는 2023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서비스와 브랜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형 인플루언서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시즌4에는 총 25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으며,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활동 기간 동안 792건의 콘텐츠가 제작됐다.

시즌4에서는 임직원과 크리에이터 간 교류 확대,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LG유플러스는 자사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 ‘부스터스 시즌4’ 활동을 통해 792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적 조회수 2천900만 회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진행한 부스터스 시즌4 어워즈에서 LG유플러스 관계자와 크리에이터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콘텐츠 제작 교육, MWC 25와 유튜브 페스티벌 등 현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참여 크리에이터의 팔로워 수는 활동 전 대비 평균 110% 증가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2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부스터스 활동의 누적 조회수는 1억 회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시즌4를 마

무리하는 연말 행사를 열고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브랜드 철학을 주제로 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부스터스 시즌5참여 크리에이터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즌5에서는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전 시즌 참여자도 희망할 경우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메타빌드,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첨단기술 분야 연구소 첫 지정

메타빌드는 자사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는 200여 기술기업이 지원해 최종 34개 연구소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는 기술혁신 성과와 연구 인력·인프라, 인증 및 특허 보유 현황, 핵심 기술의 성장 가능성 등을 서류·발표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연구 경쟁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메타빌드 기업부설연구소는 AX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소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연구소는 향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국가연구개발 사업 가점과 병역지정업체 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메타빌드는 AX 연계 플랫폼, 생성형 AI 기반 AX 플랫폼, 디지털 트윈 관계 플랫폼, 디지털 휴먼 플랫폼, 교통 검지 솔루션 등 다양한 기

술을 연구·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연구개발 성과가 소프트웨어 성장과 일자리, 인재 양성 등 기업 전반의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AX 플랫폼을 공공·금융·의료 분야에 적용해 상담, 검색, 문서 요약, 민원 응대,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축한 점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AX 연계 플랫폼과 AI 민원 서비스, 망 연계 소프트웨어 등에서 품질 인증과 기술·제품 성능 확인을 획득했고, 다수의 AI 관련 특허 출원·등록 성과도 평가에 반영됐다. /김서현 기자

“유료방송 서비스 전반 ‘안정적’ 평가”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IPTV, 속도·만족도서 우위 보여
유료 VOD 광고 늘어… 이용부담 ↑

IPTV, 종합유선방송(M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전반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만족도에서는 사업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IPTV는 속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위성방송은 일부 핵심 지표에서 뒤처졌다. 반면,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에 삽입되는 광고는 IPTV와 케이블 진영 모두에서 증가해 이용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케이블 복수 SO, 중소 SO,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등 18개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널 전환시간과 VOD 광고 횟수·시간 등 정량 지표와 함께 영상 체감품질, 콘텐츠 만족도·다양성, 이용 만족도 등 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사업자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아 IPTV, MSO, 중소 SO, 위성 등 사업 유형별 비교만 가능하다.

영상 체감품질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용자 평가단이 뉴스·드라마·스포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끊김과 멈춤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60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유형별로는 IPTV가 4.66점으로 가장 높았고, MSO 4.61점, 중소 SO 4.58점, 위성 4.55점 순이었다. 전년 대비 IPTV, MSO, 위성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 SO만 0.04점 상승했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역시 IPTV가 가장 높았다. 가입과 설치부터 이용, A/

S, 변경·해지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64.9점이었다. IPTV는 67.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중소 SO 65.3점, MSO 63.5점, 위성 61.3점이 뒤를 이었다.

세부 항목에서도 IPTV는 시청 품질·안정성과 이용 기능·편의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 ‘콘텐츠 만족도’ 항목은 ‘콘텐츠 만족도 및 다양성’으로 개편됐다. 실시간 채널과 VOD 다양성, 광고 시간 적정성, 이용 편의성 등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9.4점으로 나타났다.

이용 편의성이 6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콘텐츠 유용성, 다양성, 최신성 순으로 평가됐다. 반면 VOD 비용의 합리성과 광고시간 적정성은 50점대 중반에 그쳤다. 위성방송은 IPTV사업자의 VOD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조를 고려해 해당 항목 평가에서 제외됐다.

채감 속도 지표에서는 IPTV의 우위가 더욱 뚜렷했다. 셋톱박스 시작시간은 전체 평균 2.96초로 전년과 같았으며, IPTV는 2.14초로 가장 빨랐다. 채널 전환시간 역시 IPTV가 0.50초로 가장 짧았고, 위성은 1.80초로 유일하게 전년보다 악화됐다.

유료 VOD 광고도 늘었다. 유료 VOD 1편당 평균 광고 횟수는 0.53회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IPTV와 MSO에서 특히 증가 폭이 컸다. 광고 시간 역시 평균 15.29초로 늘어, 유료 콘텐츠 이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료 VOD의 광고 횟수와 시간은 유료보다 훨씬 많았다.

방미통위는 이용자의 실제 체감 경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올해 영상 체감품질 평가단과 만족도 조사 표본을 각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K AX,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화

상호금융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
1110개 농·축협 대상… 고객관리 정교화

SK AX가 농협의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호금융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과 업종별 영업 환경을 데이터로 분석해 고객관리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 시스템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직원들이 기술 숙련도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목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축협 조합원과 준조합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고객군을 세분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분석을 적용해 보다 정교한 고객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K AX는 향후 2년에 걸쳐 고객 행동과 관심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마케팅 플랫폼과 데이터 품질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이터 플랫폼, 직

원용 BI 포털을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마케팅 플랫폼에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맞춤 제안 기능과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현장 상담의 정확성과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플랫폼은 부서와 시스템마다 달랐던 용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변경 이력과 영향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전국 농·축협이 동일한 기준으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셀프 BI 기능도 도입된다. 데이터 활용 경험이 적은 직원도 고객 응대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 AX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개발 자동화 플랫폼을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해 분석과 설계, 테스트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계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계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사라진 해외주식 마케팅… “체감상 불리해진 건 개인뿐”

고환율 국면 영향… 증권가 눈치밥 이벤트·광고 등 프로모션 정리 나서 투자자들 “거래 환경만 불리해져”

“해외주식 이벤트 때문에 특별히 투자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정보만 줄어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다. 고환율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면서다. 투자자들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체감상 불리해진 건 개인뿐”이라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 채널을 오는 26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채널은 2018년 9월 개설된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대표 해외주식 정보 창구로, 구독자 3만6000명대 수준의 ‘서학개미 필수 채널’로 통했다. 당국의 마케팅 자체령이 단순 이벤트 중단을 넘어,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정보 접근성 축소로까지 번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사라진다고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80.1원)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비용은 올라가고 정보는 줄었다”는 억울함이 두드러진다. 투자관련 오픈 채팅방에는 “환율이 높아서 투자 못하는 것이지 이벤트 탓이 아니다”, “쿠폰·우대가 없어져 손해는 개인이 본다”, “정보 채널까지 닫히면 뭘 보고 판단하나” 같은 반응이 잇따른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남아 있는데, 거래 환경만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에 맞춰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사실상 정리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종료했고, 토스증권도 거래

수수료 캐시백 혜택을 조기 마감했다.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타사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을 지급하던 이벤트를 멈추고, 미래에셋증권도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일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당국의 현장 점검이 ‘신호’로 작동했다고 본다.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관련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권에서는 특별한 위법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고 실제로 드러난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서학개미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보여주기가식이라도 해외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부터 순차적

으로 현장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몸을 사리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고환율 국면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큰 증권사들을 잇달아 불러 마케팅 관행을 점검했고,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키움증권·토스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환율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들이다. 이후 업계 전반으로 ‘신규 이벤트·광고 중단’ 기조가 빠르게 확산됐다.

증권사 내부에서는 이번 흐름을 마냥 부담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혜택은 줄어드는데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잡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7조 달성

지난해 말 대비 잔고 규모 두 배 증가

삼성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7조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증시 회복과 함께 절세형 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잔고 규모는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객 수는 17% 늘어 137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증권은 잔고 7조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 혜택과 기존 고객의 추가 자금 유입, 계좌 내 금융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타깃데이트펀드 3종 순자산 총액 2조 돌파

신한자산운용의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3종 순자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

23일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마음편한 TDF, 장기성장TDF, 빠른대응TDF 등 TDF 시리즈 3종의 순자산 총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약 1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순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672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시장 국면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하는 ‘신한빠른대응TDF2030’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상품은 연초 이후 수익률 15.1%를 기록하며 동일 빈티지 내 경쟁 상품 26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짧은 환매주기(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를 적용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펀드 등 투자 과정 분쟁사례·유의사항 공유

ETF 등 자주 접하는 상품 중심 소개 “구조·비용 등 상품별 차이 확인해야”

#.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해 온 펀드를 5년 만에 해지한 A씨는 환매대금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장기 투자 상품이어서 환매 수수료는 1% 수준일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에 3%와 5%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금융회사의 설명은 “최초 가입일이 아니라 매월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된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투자 과정에서 구조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공개했다. 펀드와 ETF, 해외주식, 신주인수권 등 개인투자자가



금융감독원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자주 접하는 상품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모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환매수수료 분쟁은 적립식 상품에서 특히 잦다. 동일한 펀드라도 납입 시점별 보유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저율 수수료’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ETF 투자에서도 비용 구조를 둘러

싼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물복제 방식과 달리 스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최종 수익률이 낮아진 뒤에야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발생도 빈번한 분쟁 유형이다. ETF 매도 대금으로 같은 날 다른 금융상품을 매수했는데, 상품별 결제일이 달라 미수금과 이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회사 측은 거래 화면과 설명서에 결제일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분할이나 병합 과정에서 정보 반영이 지연되며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분할 비율이 적용되는 며칠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지만, 예탁·보관 구조상 불가피한 지연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둘러싼 분쟁도 빠지지 않는다. 청약기일을 넘기거나, 기일 내 행사했다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해 신주인수가 취소되는 경우다. 투자자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고지와 문자 안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구조와 비용, 결제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경험이나 추정에 기대 투자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 실제 분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업종 확대

AI·에너지 등 혁신기업 상장 촉진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개한 시행세칙개정안을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및 에

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게 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

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

련돼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에는 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왼쪽부터)김봉균 Retail전략본부장, 최은정 W Prestige 강남 부센터장, 박세진 W Prestige 강남 센터장, 뤼즈평 대표이사, 신남석 Retail사업부문대표, 권동훈 본부장. /유안타증권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대기업, 출자구조 단순화 일부 진전 지배구조 투명성은 여전히 ‘과제’

공정위,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공시집단 절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국의 계열사 통한 우회 출자 여전히
체제 밖 계열사 ‘옥상옥’ 지배 우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약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출자 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은 일정 부분 진전됐지만,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개로 집계됐다. 2016년 첫 분석 당시 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규모로,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체제는 수평·방사형 출자 금지, 출자 단계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을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았다.

소유 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

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지분율은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48개 국외 계열사가 4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사례는 총 76건으로, 전년대보다 증가했다. 롯데, SK, LX, 동원, 원익 등의 집단에서 국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지주회사나 그 자·손자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에 달했다.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의 직접적인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재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3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6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9.97%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80%를 웃돌았고, 절반 이상에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옥상옥’ 구조로 평가했다. 국외 계열사와 체

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올해 12.35%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38%로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집단별로는 반도체·IT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셀트리온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익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절반을 넘었다.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등 일부 지주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배당에 의존하고 있었고, 반대로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등 배당 비중이 30% 미만인 곳도 존재해 집단 간 편차가 있었다.

배당 외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평균 13.0%를 차지했고, 합계액은 1조4040억원으로 전년대보다 534억원 증가했다. LG, SK, CJ, 롯데, GS 순으로 상표권 수익 규모가 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조업 반등… 작년 지역경제 2% 성장

데이터처, 지역소득 잠정치 발표

지난해 국내 지역경제 규모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2%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제조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격이 오르내린 부분을 제하고 생산량이 바뀐 분만큼 구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산정할 때 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0.6%)했으나, 이듬해 회복해 2021년 4.5%,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비수도권은 1.6% 각각 성장했

다.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보다 0.8%p 이유는 반도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실질 성장률은 경기(3.6%), 울산(3.4%), 전남(3.4%) 등이 제조업과 운수업 증가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북(-1.5%), 대구(-0.8%)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전국 전기·가스·열 공급업(5.1%), 광업·제조업(4.2%), 서비스업(1.5%), 농림어업(0.9%)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건설업(-3.0%)은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지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 원(6.2%) 증가했다.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지역 외로부터 순수하게 취한 본원소득을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외 건설 수주에 금융·보증지원 강화

무보,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이석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월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로 기후재난 대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부,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홍수·폭염·산불 예측에 AI 전면 도입
댐·도로·주택 등 기반시설 기준 개선
반지하·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후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매 5년 마다 수립해 왔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



지난 9월 지속된 가뭄 탓에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 바닥이 갈라져 있다. /뉴시스

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고루를 연계한다. 홍수엔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가뭄 기간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러브버그 등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

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한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넓힌다.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사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또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교육부, AI 인재양성 중심으로 조직개편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할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

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ihj@

“‘당 저감·락토프리’ 요거트, 간식 아닌 건강한 한끼 되다”



인터뷰

정혜승 풀무원다는 팀장

“예전엔 요거트를 왜 먹느냐고 물으면 ‘간식’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식단 관리, 아침 대용, 건강한 끼로 요거트를 찾는 소비자가 분명히 늘었습니다.”

정혜승 풀무원다는 팀장은 최근 요거트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풀무원다는는 10년 연속 국내 그릭 요거트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풀무원요거트 그릭’을 당 저감과 락토프리(Lactose Free)로 전면 리뉴얼하며, 요거트를 ‘식사대용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당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화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다. 풀무원다는는 지난 5월 설탕무첨가 플레인으로 전환하며 1차 당 저감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당 저감과 동시에 전 제품을 락토프리로 전환했다. 설탕무첨가 플레인의 경우 100g 기준 당 함량을 기존 4g에서 1.8g으로 55% 추가 저감했다.

정 팀장은 “요거트를 매일 먹는 식사 대용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



정혜승 풀무원다는 팀장.

당 함량 기준 4g → 1.8g 저감
떠먹는 그릭 요거트 중심 시장
운동·식단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발효 기술로 경쟁력 ↑
대표브랜드 입지 굳히기 전략

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가 ‘당 함량’과 ‘속 편안함’이라며 “락토프리 전환은 유당 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뿐 아니라, 빈속에 요거트를 먹을 때 부담을 느끼는 이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 **드링크에서 ‘떠먹는 그릭’으로…요거트 시장의 중심 이동**

국내 요거트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마시는 요거트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떠먹는 그릭 요거트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건강기능식 시장이 커지면서 마시는 제품에 기능을 기대하는 수

요’가 분산됐고, 대신 ‘차라리 건강한 식사를 하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그릭 요거트가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드링크 중심 시장에서 그릭 중심 시장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포만감이 커,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셰이크를 대체하는 현실적인 식사대용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과 식단 관리 트렌드가 확산되며, 요거트에 그레놀라·과일을 곁들여 먹는 소비 방식도 일상화됐다.

◆ **기술로 차별화한 그릭 요거트**

풀무원다는이 강조하는 차별점은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선다. 정 팀장은 “그릭 요거트 시장에서 저지방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며 “저지방을 유지하면서도 당을 낮추고, 맛까지 잡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 배경에는 다논의 글로벌 발효 기술이 있다. 발효 후 원하는 산도에 도달하면 즉시 급속 냉각해 후발효를 원천 차단하는 공정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신맛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에 무균 자동화 공정을 적용해 제품 간 맛과 물성의 편차를 최소화했다.

정 팀장은 “설탕무첨가 제품은 자칫 신맛이 강해질 수 있는데, ‘풀무원요거트 그릭’은 누구나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마일드한 맛을 구현했다”며 “락토프리 전환 이후 가맹점과 소비자 반응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전했다.

◆ **“대표 건강 식사대용 브랜드 목표”**

풀무원다는는 그릭 요거트를 단기 유행이 아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2014년 국내에서 그릭 요거트를 선보인 이후 시장을 개척해왔고,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도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정 팀장은 “요거트는 이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식단 안으로 들어왔다”며 “앞으로도 당 저감, 락토프리, 단백질 설계 등 소비자가 실제로 걱정하는 요소를 먼저 해결해 ‘건강한 한 끼’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줄 수 있고,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옵션’으로 요거트를 떠올려 달라”고 덧붙였다. 당을 줄이고, 유당 부담을 덜어낸 그릭 요거트. 풀무원다는은 요거트의 자리를 ‘간식 코너’가 아닌 식탁 한가운데로 옮기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BQ, 소비자가 뽑은 ‘가장 맛있는 치킨’ 1위

치킨 브랜드 9곳 포스팅 빅데이터
‘맛있다’ 키워드의 언급량 종합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의 BBQ 치킨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장 맛있는 치킨’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주요 9곳의 치킨 브랜드들에 대해 ‘맛있다’ 키워드의 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종합했다. 분석 방법은 브랜드명을 검색한 뒤

추출된 연관어 중 ‘맛있다’ 키워드의 언급량을 종합한 방식이다.

지난 11월 BBQ 치킨의 ‘맛있다’ 키워드 포스팅 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되며 9개 브랜드중 최고점을 차지했다. 전체 포스팅 수 1444건 중 약 35.9%에 해당하는 수치로 BBQ는 2위를 기록한 브랜드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치로 1위에 기록했다.

BBQ의 브랜드 가치는 미국에서도 전해졌다. 연간 12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미국 대표 로컬 리뷰·검색 플랫폼 Yelp(옐프)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Most Loved Brands)’ BBQ 치킨을 3위로 발표했다. 또한 구독자 수 약 190만 명을 보유한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Taste of Home)’은 미국 전역의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의 치킨을 시식 및 평가해 BBQ를 ‘최고의 치킨’으로 발표했다.

BBQ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맛있는 치킨’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맛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알뜰한 홈파티족 위한 초저가 와인·음식 선봬

CU가 고물가 시대 알뜰하게 연말 모임을 준비하는 홈파티족을 위해 초저가 와인과 유명 셰프 협업 먹거리를 내놓는다. CU는 초저가 와인 ‘TOA(Taste of Australia)’ 2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TOA 와인은 호주산 쉬라즈(레드)와 소비뇽블랑(화이트) 2종으로, 가격은 병당 4900원이다. 3병 동시 구매 시 1만2000원에 내놓는다.

파티용 먹거리로는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인 ‘나폴리맛피어’ 권성준 셰프와 손잡고 기획 상품 2종을 내놓는다. 미니 버거와 감자튀김으로 구성된 ‘미니 버거 플레이트(8900원)’와 ‘치즈 고구마 피자(3900원)’로 가성비와 맛을 모두 잡았다.

/손종욱 기자

신세계百貨, ‘나를 위한 소비’ 연말 기획전

이달 31일까지 행사 진행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31일까지 패션, 잡화, 뷰티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올 어바웃 윈터 패션(ALL ABOUT WINTER FASHION)’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나를 위한 소비’는 유통가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10월 고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셀프 기프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빈도와 비용이 늘었다는 응답도 각각 37%, 45%에 달했다. 구매 목적은 주로 ‘기분 전환 및 힐링’이었으며, 선호 품목은 패션·잡화(67%), 명품(62%), 뷰티(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고객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

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프라인 아르마니, 메종키츠네, 바버 등 남녀의류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가을·겨울(F·W) 상품을 시즌오프를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제휴카드도 60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크리스마스 기간인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의 신백리워드를 증정하는 등 체감 혜택을 높였다.

특별한 뷰티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샤넬 윈터 컨스텔레이션’ 팝업을 운영한다. 겨울 정원과 별자리 관측소를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홀리데이 한정판 향수 패키지와 주얼리 체인이 결합된 ‘N° 5 오 드 파르페 펄스 스프레이’ 등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신라免, ‘궁궐 콘셉트’ 정관장 매장 열어

인천국제공항 T2 253번 게이트 인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게이트 인근에 ‘정관장 프리미엄 헤리티지 스토어’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정관장 최초로 ‘궁궐’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궁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와 곡선 형태의 동선을 통해 고객이 마치 궁궐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곳곳에 배치된 문화유산 소품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상품 구성 또한 외국인 고객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중국인 관광객 등이 선호하는 ‘뿌리삼’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전통 건강차 비법에 홍삼과 감귤향을 더한 ‘궁정비차’ 등 특화 제품도 선보인다.

특히 신라면세점 단독 상품인 ‘본삼 중편(75g)’도 판매한다. 정관장 제조 장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정관장 프리미엄 헤리티지 스토어’를 열었다. /신라면세점

인이 엄선한 뿌리삼 원물로 구성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브리타임 필름’ 기프트 에디션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에너지 활기력샷’과 ‘기다림 침향환’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지난 4월 KGC인삼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규 상품 공동 기획 및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배민B마트, ‘내일 예약’으로 배달시간 지정

전 매장서 1시간 단위로 시간 지정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장보기 서비스 배민B마트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예약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지난 16일부터 배민B마트 전 매장에서 1시간 단위로 배달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내일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문 마감 시간에 쫓기거나 불명확한 배송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 이커머스 익일 배송의 단점을 보완했다. 고객은 하루 중 언제 주문하더라도 다음 날 원하는 시간대를 1시간 간격으로 선택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민B마트 운영 시간(오픈~자정)에 주문하면 다음 날 배달을 예약할 수 있고, 운영 종료 후(자정~오픈 전)에 주문하더라도 당일 원하는 시간으로 배달 시점을 지정할 수 있다.

/손종욱 기자

비만 치료제 시장,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국내 제약사, 韓 맞춤형 치료제 속도

위고비 알약, 먹는 비만치료제 승인
1일 1회 복용으로 16.6% 감소율

한미약품, 첫 국산 상용화 앞뒤
일동제약, 비만약 임상 1상 진입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먹는 비만약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알약’이 세계 첫 번째 ‘먹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 알약은 세마글루티드 25mg을 1일 1회 경구 처방한 것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승인은 OASIS 임상시험 프로그램과 SELECT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OASIS 4 시험은 비만 또는 과체중과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마글루티드 25mg을 1일 1회 경구 복용한 경우 참가자들의 체중 감소율은 평균 16.6%로 확인됐다. 체중 감소 효과는 위고비 주사 2.4mg과 유사했으며 참가자 3명 중 1명은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두스트다르 노보노디스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현재 다른 어떤 경구 제형 GLP-1 치료제도 위고비 알약이 제공하는 체중 감소 효과와 경쟁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편리하게 1일 1회 복용하는 알약으로 기존 위고비 주사만큼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초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발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초기 용량 기준 월 149달러(약 22만원)로 책정됐고 이는 기존 비만



비만 환자는 이제 알약으로 체중 관리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치료제 대비 낮은 수준이다.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후발 주자는 일라이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이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오르포글리프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르포글리프론 역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를 경구 제형으로 설계한 약물이다. 비만 또는 과체중 및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에서 체중, 혈당 등을 낮추는 효능을 입증했다.

일라이 릴리는 오르포글리프론을 6mg, 12mg, 36mg 등 세가지 용량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난 8월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용량 모두 1차 및 모든 주 2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특히 음식과 물 제한 없이 하루에 한 번 복용한 오르포글리프론 36mg은 체중을 평균 10.5% 감소시켰다.

이후 최근에는 기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 또는 쥘바운드 주사제를 72주 동안 투여한 환자에서 오르포글리프론으로 전환했을 때 최대 1년 시점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제형 변경에서 장기 효과 등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선두에서 속도를 낸다. 한미약품은 지난 17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독자 개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첫 번째 국산 비만 치료제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질량지수 30kg/m²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율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초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기대된다.

일동제약은 국산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며 잔걸음을 내딛는다. 일동제약은 먹는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ID110521156’을 확보했고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오는 2026년 글로벌 임상 2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ID110521156’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작용제 계열 약물이면서, 비(非)펩타이드 기반의 저분자 화합물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우수한 생산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췄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연구개발 속도는 이미 매우 빠르지만, 비만 치료제는 비만뿐 아니라 당뇨, 대사질환, 심혈관 등 만성 질환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속도전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시네마, ‘파리 오페라&발레’ 공연 선택

호두까기인형, 지젤, 르 팍 구성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파리 오페라&발레(Paris Opera & Ballet)’ 공연 시리즈를 극장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발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시네마는 연말부터 새해, 봄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맞춰 클래식 발레를 차례로 감상할 수 있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시즌별로 작품의 매력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낭만·컨템퍼러리 대표작으로 구성했으며, 공연의 감동을 스크린으로 확장해 관객들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롯데시네마는 공연 콘텐츠 전문 배급사 ‘위즈온센’과 함께 세계 최정상 발레단으로 꼽히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상영한다. 이번 시리즈는 연말·연초를 대표하는 클래식 발레의 상징 ▲‘호두까기인형’(12/31 개봉)을 시작으로 사랑과 배신, 용서의 감정을 초현실적 판타지로 풀어낸 낭만 발레의 정수 ▲‘지젤’(2/5 개봉), 현대적 안무가 빚어내는 사랑과 욕망의 긴장을 담은 컨템퍼러리 발레 ▲‘르 팍’(4/9 개봉)까지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극장에서의 상영은 공연장에서는 놓치기 쉬운 군무의 동선과 구조, 호흡을 스크린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전달한다. 여기에 무대 미술, 의상, 조명 등 ‘파리 오페라 발레단’ 특유의 완성도 높은 연출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파리 오페라&발레’ 시리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건대입구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일동후디스, 유소년 축구선수 영양교육 확대

두번째 ‘아미노산 세미나’ 운영
성장기 선수들의 영양관리 초점

일동후디스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아미노산 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달 FC서울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첫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성남FC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렸으며, 초·중·고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코치진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일동후디스 식품연구소 관계자가 강연자로 나서 성장기 선수들의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단백질 섭취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을 비롯해 성장 단계별 아미노산 섭취 전략,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섭취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선수 개인의 식량과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영양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도 이어졌다.

일동후디스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단백질 및 아미노산 제품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유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스포츠 현장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동아에스티, ‘하이카디’ EX871 급여 인정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실제임상근거로 안전성·활용성 입증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동아에스티가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에 대해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카디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매주에서 개발했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한다. 생체 신호를 감속하는 심전도 패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환자 심전도,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실시간 감시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속적 감시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전도 침상감시(E6544)’는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EX871은 외래 또는 입원 중 환자가 이동하는 상황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하이카디는 병상이나 병동에 국한되



‘하이카디’를 통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인한다. /동아에스티

지 않은 병원 전반의 연속적 모니터링 환경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실제임상근거(RWE)를 축적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입증했다. 특히 원내 이동이 잦은 환자에서 생체신호의 측정 및 분석 성능뿐 아니라, 환자 위치나 이동과 무관한 끊임 없는 지속가능성을 갖췄다.

하이카디는 앞서 ‘심전도 침상감시(E6544)’ 요양급여대상으로는 지난 2020년 국내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등록됐다.

박정환 매주 대표는 “수년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며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이번 EX871 수가 추가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와 실제 운영을 종합 반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생명연장·삶의 질 개선’ 경영철학 실현 박차

HLB그룹, ‘HLB 학동 사옥’ 개소식
HLB생명과학 등 주요 계열사 집결
오는 31일 ‘통합 HLB’ 출범 예정도

HLB그룹이 ‘HumanLifeBetter(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학동 시대’를 열었다.

HLB그룹은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LB 학동 사옥’을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지난 2024년 2월 해당 건물을 매입 후 약 2년 만이다.

학동 사옥은 연면적 9610.13㎡ 규모에 지하 4층과 지상 7층을 조성했다. 학동 사옥은 HLB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해 HLB를 비롯해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 등 서울 소재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집결한다.

HLB그룹은 ▲창의(Create) ▲도전(Challenge) ▲협업(Collaborate) ▲



23일 서울 강남 소재 ‘HLB 학동 사옥’ 개소식에서 진양곤 HLB그룹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그룹 임원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LB그룹

몰입(Concentrate) ▲변화(Change) ▲소통(Communicate) 등 6대 그룹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각 층에 유기적으로 반영했다.

계열사 간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영감, 창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으로 HLB그룹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계획에서도 각 계열사의 단독 대표 체제를 강화

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기술 협업 등을 본격화하는 구도를 확립했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통합 HLB’가 출범한다. HLB와 HLB사이언스가 합병해 존속법인은 HLB가 되며 HLB사이언스는 해산한다. 양사의 신약개발 역량과 연구 인프라가 연결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항암제 중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패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분야로 다각화해 성장동력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하나금융그룹,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2일 명동사육에서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손님들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손님과 임직원, 퇴직직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준비한 총 125개의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 등 18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GC녹십자, LMO 안전관리 우수… 과기부 장관상
GC녹십자는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다부처 생명연구지원 성과교류회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GC녹십자 박한나 R&D운영부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사이버한국외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학 홍보 서포터즈 학생들이 지난 20일 서울 개포동 구름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글로벌대학으로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사이버한국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외국인 재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벤츠코리아, ‘윈터 스틸’ 팝업 운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겨울을 맞아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모나 오펜 스키 리조트에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 행사 ‘윈터 스틸’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벤츠 고객만을 위한 전용 공간 ‘메르세데스-벤츠 윈터 라운지’를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 벤츠 차량키 또는 메르세데스 미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24일과 25일, 31일, 내년 1월 1일에는 ‘홀리데이 카테일 나이트’를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국내 누적 500만 고객을 모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F1 더 무비’를 상영한다. /양성운 기자

인사

◆**신영** (승진)△ 개발부문대표 손종구 사장△ 엔지니어링본부장 김재훈 상무

부음

▲강재수(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 이사장)씨 별세, 박미혜씨 남편상, 강경진·경석(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씨 부친상, 김지혜씨 시부상, 이세준씨 장인상 = 22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063)250-1444
▲홍신자 별세,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모친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5일.

현대차그룹, 美 IIHS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아이오닉9·G80 등 ‘TSP+’ 등급
글로벌 안전 브랜드 위상 공고히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글로벌 최고 안전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쏜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현대차그룹은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TSP+ 등급 획득 차종을 지난해 12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타



현대차 아이오닉 9.

협 없는 의지를 증명했다.
올해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코나 ▲투싼 ▲싼타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등 현대차 8개 차종과 ▲EV9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K4 등 기아 5개 차종,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G80 등 제네시스 5개 차종이다.
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총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오뚜기, ‘6·25 참전용사’ 함태호 창업주 애국정신 이어간다

유공자·가족 대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오뚜기가 6·25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6·25 참전용사였던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의 애국정신을 계승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오뚜기와 국가보훈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등과 협력해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오뚜기 제품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직접 조리가 어렵다는 점과 구비된 식재료 등이 부족해 현장에서 식사를



오뚜기가 6·25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오뚜기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재가보훈 실무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오뚜기 제품 구성을 마련했다.
하절기에는 참기름, 순후추 등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류와 양념류, 동절기에는 삼계탕, 상온죽 등 겨울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보양

간편식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후원 물품은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오뚜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오뚜기는 ‘국가가 있어야 회사도

아이오닉 9와 EV9이 전면·측면 충돌 평가와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을 받은 것을 필두로, 준중형 SUV 아이오닉 5·GV60와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등 E-GMP 전기차는 다양한 차급에서 TSP+ 등급을 획득했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를,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
현대차그룹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그룹의 노력이 세계 최고 권위의 평가를 통해 2년 연속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있다’는 창업주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충북 음성군 오뚜기 대풍공장에 가로 10.5m, 세로 7m에 달하는 대형 태극기를 지상 59.5m 높이로 우뚝 솟은 대형 계양대에 게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방 유해발굴지역 군부대 지원, 국립서울현충원 헌충탑 참배 및 장병 묘역 정화 활동 등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보훈·애국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6·25 참전유공자들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후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금호타이어,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정일택 사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의지 표명

금호타이어가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와 함께 실시되었으며 행사에는 임직원을 대표하여 설비구매담당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동환 설비구매담당 상무가 22일 함평공장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함평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서며, 같은 해 연 600만본 생산 규모의 폴란드 공장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키쿠오의 삶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요시다 슈이치(吉田修一)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국보’는 전후 일본 가부키계를 배경으로, 혈통과 제도의 장벽을 극복한 한 예술가가 인간 국보라는 절대적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반세기를 그린다.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 키쿠오의 삶을 통해 예술이 한 인간을 어떻게 빛고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냉정하게 기록했다.

모든 배역을 남성이 연기하는(온나가타) 가부키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한다. 예술적 정당성도 그것에서 비롯된다.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이름은 배우의 기량보다 우선하며, 무대에 오를 자격을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법이기도 하다. 키쿠오는 이 질서의 바깥에서 태어난 존재다. 타고난 신체 감각과 연기력, 무대를 장악하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줄 ‘희’를 갖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가부키 명문이 오미야 집안의 적자 슌스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무대 위의 미래가 약속된 인물로, 출발선

부터 키쿠오와는 정반대다. 그러나 슌스케 역시 육중한 가문의 이름 아래 개인으로서의 욕망과 불안을 억눌러야 했고 감당해야 할 역할 또한 만만치 않다.

두 소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엮는 인물은 오미야 가문의 당주이자 당대 최고의 배우 하나이 한지로다. 그는 전통을 수호하는 가부장이면서 누구보다 예술의 절대성을 신봉했다. 아들 슌스케를 엄격히 훈육하며 가문의 명맥을 잇게 하려 하지만, 동시에 키쿠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순수한 예술적 감응을 느낀다.

한지로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키쿠오를 제자로 받아들인 후 역사를 상속받는 예명(藝名)까지 물려준다. 이 선택은 가문의 질서 안에서 보면 위험한 균열이었으며, 그 결정의 대가는 두 젊은 배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슌스케에게는 끝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키쿠오에게는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기대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설적인 배우 만기쿠의 존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아름다운 괴물’이라 불렸던 그는, 예술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의 소진해버린 존재다. 키쿠오와 슌스케가 바라보는 정상은 사실 상 괴물의 그림자였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검은 그늘 안으로 다가간다. 경쟁 속 믿음과 질투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를 완성시키는 불편한 공존을 잇는다.

키쿠오는 어린 혼외자에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최고가 되겠다”고 말한다. 그건 야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혈통이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에게 최고의 자리는 원래부터 금지된 영역이었고, 그 불가능성은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든다. 영화는 이 집요함을 미화하지 않는다. 키쿠오가 정점에 이를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무대 위의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 속박과 굴레의 늪에 빠진다.

키쿠오는 마침내 국보가 된다. 이는 사회적·제도적 성공이며, 그가 평생 갈망해온 인정의 완성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 성취를 찬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형상을 구현한 그의 모습과, 장막 뒤의 텅 빈 실존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피의 계급을 넘어선 욕망하는 인간의 고독을 비춘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자의 고통 또는 애처로움이 담긴 극중 마지막 공연 ‘백로 아가씨’(Sagi Musume)는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오랜 잔상으로 남는다.

/미술평론가

도수치료 논쟁, ‘이익’보다 ‘기준’



기지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올해 1~9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손이 또 문제’라는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은 돈이 몰린 지점이다. 진료과별로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22.3%)으로 가장 컸고, 해당 지급액의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57.1%)을 크게 웃돈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겠다고 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란 프레임으로 맞선다.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비급여를 “가격·급여기준 설정과 주기적 관리”로 묶겠다는 취지다.

이 논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의돼야 한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만들되, 필요한 치료는 남기고 남용은 견어낼 만큼 기준을 선명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관리급여는 ‘전액 급여’가 아니다.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 수준으로 설정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가격이 내려가도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인식만으로 이용량이 늘면, 실손 지급액은 다른 경로로 다시 볼 수 있다.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절차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준을 먼저 선명하게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남용을 가려내고, 절감 효과가 어디로 흘렀는지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급여가 ‘갈등의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 논쟁 역시 ‘얼마’가 아니라 ‘왜’와 ‘어떻게’로 옮겨갈 수 있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2월 24일 (음 11월 5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려라. 48년생 변화 속에서 기회가 온다. 60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피곤. 72년생 얽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를 보라. 84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소

37년생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신세지만 내릴 수도 없다. 49년생 타인의 시선에 부러움을 느낀다. 61년생 들뜨지 말라. 73년생 난초와 같은 어여쁜 아내와 결혼을 하니까 마음. 85년생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호랑이

38년생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도와준다. 5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62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뤘던 일 찾아서 해내도록. 74년생 벌집에 벌이 모여 들 듯 자손 번창. 8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라.

 토끼

3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 계속 가야 할 것. 5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 63년생 결혼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75년생 매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니 어이할까나. 87년생 분수를 지키면 실수가 적어진다.

 양

40년생 말을 소곤소곤하는 사람을 주의하자. 52년생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니 이 또한 좋구나. 64년생 일이 넘치는데 손이 부족하다. 76년생 사람의 부귀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 88년생 자식이 예뻐수록 바르게 가르쳐라.

 뱀

41년생 직장에 충실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53년생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최선 몸과 마음도. 65년생 운전할 때 인제나 양보로. 77년생 이익을 위하여 몸을 해치는 말라. 89년생 조상님의 산소를 살피고 제사 모시기.

 말

42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54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를 소중히.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78년생 인생은 허무한 꿈만 같다. 90년생 감정을 자제해야 이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고양이

43년생 어느 구름에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55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67년생 과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좋을듯. 79년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91년생 끝까지 참은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냈다.

 원숭이

44년생 그 아버지에게 아들. 56년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피곤하다. 68년생 계획한 지출이 많이 생기니 마이너스다. 80년생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성실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보라. 92년생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닭

45년생 여행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57년생 예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바르게 된다. 69년생 다툼이 있으나 해결되어 감사한 하루임. 81년생 돈도 재물도 많았으나 일도 많았다. 93년생 문서계약이 순조롭게 풀린다.

 돼지

46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 70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82년생 재물을 하나씩 이루게 되어 조상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94년생 하늘도 파랑고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돼지

47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그리움이다. 5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도록. 71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83년생 얽지는 물은 다시 주위 담기 힘들다. 95년생 싫다면 떠나가는 사람은 미련을 두지도 말고 원망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가슴 따뜻한 축제일이며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이라도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밤하늘에 빛나는 밝은 별 하나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성스러운 날이다. 베들레헴은 건조한 지역이라 눈이 내리지 않지만, 예수를 사랑했고 기독교 문명을 이룬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북반구의 특성상 12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에, 눈 덮인 마구간이나 오두막 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이 그려지곤 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난 도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혀 사랑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휴전을 선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슬람계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등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걱정이 크다.

팔레스타인은 예로부터 고대 세계의 중심지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3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다. 근 천 년 이상 이어진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근대에 들어서는 여러 차례 중동전쟁까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지역이다. 예수께서 제일 강조한 것은 ‘사랑’이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희생의 사랑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이다. 서양문화의 원류는 존재와 진리에 대한 고뇌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예수가 있어 가능했다. 비록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아닐지라도 인류 모두의 스승인 예수님이 있어 세상은 등불을 공유하는 썬이다. Z세대 2025년 크리스마스에는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3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속히 종전되어 행복하고 복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보길 간절히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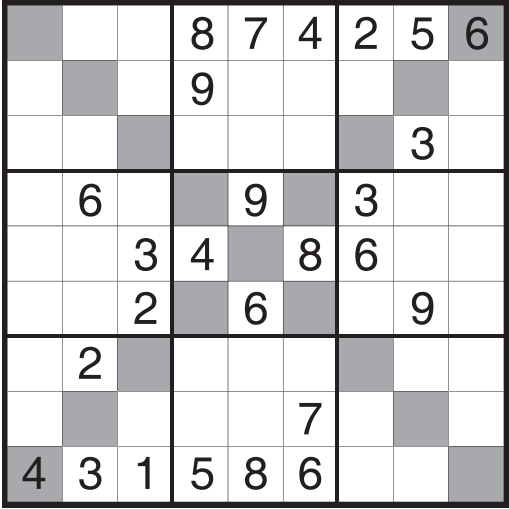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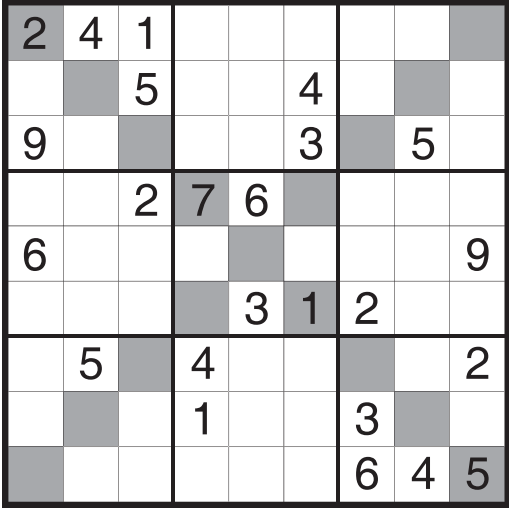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9	2	6	8	8	2	1
2	8	8	9	2	1	6	9	7
2	1	6	9	8	7	2	9	8
8	9	2	1	8	9	7	6	2
6	2	9	2	7	8	8	1	9
1	8	7	6	9	2	2	8	9
7	9	8	8	1	2	9	2	6
9	2	1	7	2	6	9	8	8
8	6	2	8	9	9	1	7	2

6	2	2	9	8	9	1	8	7
8	9	1	2	7	2	9	8	6
8	7	9	6	8	1	2	2	9
9	6	7	1	9	8	2	2	8
1	2	9	8	2	7	8	6	9
2	8	8	9	6	2	7	9	1
7	8	6	2	1	9	8	9	2
2	1	8	8	9	6	9	7	2
9	9	2	7	2	8	6	1	8

지역 이모저모

인천시 상수도 관리기준 제도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적 매뉴얼’을 수립했다.

상수도 관세적 매뉴얼은 상수도 관로 내부에 축적되는 침전물과 이물질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표준 지침으로, 관세적 공법 선정 기준부터 세척 협의,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 절차를 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해남군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등급’

해남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행 이후 해남군 최초의 성과이다.

해남군은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든 군정업무의 추진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특히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렴 체감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청렴 긍정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규모 전국 1위

전남도는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664ha로 전국 인증면적 1만 8935ha의 33%를 차지했다.

시도별 저탄소 인증 규모를 살펴보면 전남 5664ha, 전북 4560ha, 경북 3265ha, 충북 1996ha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연간 약 1만5397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부산시민단체 “김해공항 시설 확충해야”

부산시민단체가 포화상태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 등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공항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김해공항은 국제선 여객 증가에 따라 제2출국장을 부분 운영하는 등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매년 늘어나는 승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겨울방학 학습 공백 ‘서울런’으로 채우세요”

서울시, 겨울방학 프로그램 지원 AI진로 코치, 진로방향 점검·설계 대학캠퍼스서 실습 체험 기회도

서울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런’이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학습 공백 없이 새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런 3.0’ 비전에 발맞춰 이번 겨울방학 동안 ▲AI 진로·진학 코치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 ▲교과 기초 학습 등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잡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 서비스를 겨울방학 동안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제도 개편 등으로 진로·진학 선택의 복잡성이 커지는 환경을 반영해 AI 기반 분석을 통해 적성과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진학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런 여름방학 영어동행캠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울센터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AI 기반 진로·학습 심리검사 결과와 학생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공·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받고, AI 모의 면접 기능을 활용해 자기 점검과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런 회원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오프라인 참여 없이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I 코칭으로 설계한 진로나 관심 직

업을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런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도 운영한다. 로봇·반도체 등 첨단 공학 분야부터 K-뷰티·K-POP 등 예체능 분야를 아우르는 전공 심화 체험 과정을 개설해 청소년들이 대학 실습실에서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적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학 특성화 대학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로봇엔지니어 ▲반도체엔지니어 ▲소방전문가 ▲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 제어 실습이나 반도체 관련 실습 환경 체험 등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습 기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서경대학교는 K-컬처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K-뷰티(헤어·메이크업·네일) ▲K-POP 댄스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발생하기 쉬운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기초 학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겨울방학 영어동행캠프와 교과별 온라인 특강 등 ‘교과 기초 학습’을 제공한다.

영어동행캠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시 내 6개 청소년센터에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총 2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원어민 강사와의 ‘꿈을 향한 여정’의 주제로 실전 회화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현직 전문가를 초청한 ‘직업인 특강’, 한국외대 외국인 교환학생과의 문화·진로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회화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남양주 덕소역에 KTX-이음 정차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남양주시가 이달 30일부터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 KTX-이음 운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덕소역이 신규 정차역에 포함되면서 시가 이를 시민과 함께 뜻깊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덕소역에는 내년 1월 3일부터 주말 일부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

중앙선 KTX-이음은 최고 시속 260km의 고속열차로,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권을 약 3시간대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 정책의 핵심 노선이다. 그간 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방문해 KTX-이음의 덕소역 정

차를 지속 건의해왔다.

남양주시는 이번 정차로 시민들의 전국 고속생활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정차가 일부 주말 열차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평일을 포함한 KTX-이음 정차 횟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덕소역은 현재 주말에 강릉선 KTX가 정차하고 있으며, 이번 중앙선 KTX-이음 정차를 계기로 덕소역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고속철도 광역교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부산시, 올해 시정 성과 ‘베스트 12’ 선정

시민, 공무원 등 2263명 설문조사

부산시는 올해 시정 핵심 성과를 글로벌허브와 시민행복 2개 분야로 나눠 베스트 12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진행한 ‘2025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 성과를 선정했다. 설문에는 시민, 공무원, 언론인 등 총 2263명이 참여했다.

글로벌허브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가 가장 주목할 성과로 꼽혔다. 부산은 미식·야간·축제·의료관광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며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도쿄·상하이보다 높은 여행만족도 상위 2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다졌다.

상용근로자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좋은 일자리 100만 시대를 연 점도 성과로 선정됐다. 시는 지역특화 산업·신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인재를 키워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단체 대상을 받았다.

시민행복 분야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대표 성과로 뽑혔다.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강·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콘서트홀 개관도 문화 예술도시 위상을 높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공연을 유치하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사립유치원 3세 유아에 무상교육비

내년부터 1인당 월 5만5000원 지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정책 확대에 앞서 내년 3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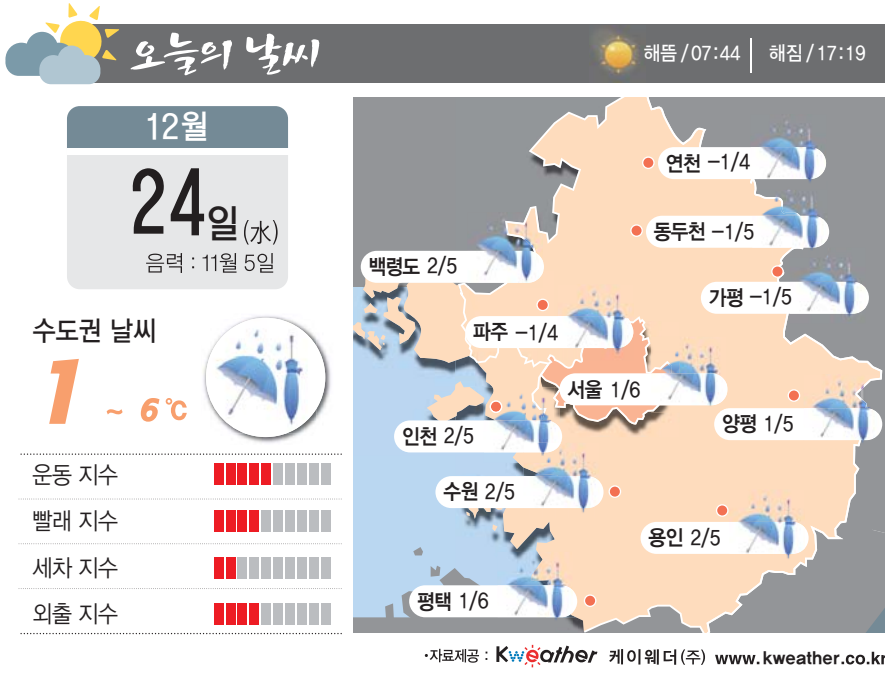
교육부는 지난 8월 올해 5세, 내년 4~5세, 2027년 3~5세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의 무상교육·보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국가 정책 확대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연령 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세 유아를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3세 유아에게 1인당 월 5만5000원의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부 무상교육비 지원 단가의 50% 수준으로 향후 교육부의 단계적 확대 정책과 연계해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日정부, 내년 역대 최대 예산 최종 조율…1157조 원 규모” /사진 뉴시스
▲中, 車반도체 공급 부족에 “넥스페리아 문제 해결” 촉구

▲트럼프, 거액 기부자에 사면·관직·접견권 보장 등 특혜…“유례없는 거래주의”
▲中 11월 희토류 수출…전월 대비 휴전한 美 11% ↓·갈등 격화 日 35% ↑

▲미·베네수엘라 갈등에…금·은 사상 최고가 찍었다
▲러 외무 차관 “러, EU·나토 공격 의지 없어…서방 적대행위로 무력 충돌 우려”



풀무원다는
당 저감·락토프리
요거트 '건강한 한끼'
L1

metro®

Life

비만치료제 시장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L2



현장에서 찾은 경영전략... 유럽 거쳐 세계시장으로 달리다

CEO 와칭

강 호 찬 넥센타이어 부회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장 중심의 실무형 경영자로, 넥센타이어를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은 리더로 평가 받는다. 금융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타이어 생산 현장과 영업 최전선을 두루 거친 그의 이력은 넥센타이어 성장사의 축약판이다.

강 부회장은 1999년 대우리조트증권에 입사한 후 2001년 넥센타이어 재경팀 과장으로 합류하며 본격적인 넥센타이어 경영의 길에 들어섰다. 생산관리, 구매, 경영기획 등 회사의 핵심 부서를 차례로 경험하며 타이어 한 본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략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경영 스타일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2009년 사장 취임 이후 “현장 경험이 있어야 회사를 한다”는 신념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영업 최전방으로 내려가 거래선과 시장을 직접 챙기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이는 조직 전반에 ‘현장 중심 경영’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2016년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2019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그는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체질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다.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유럽 중심 글로벌 성장 전략...프리미엄 시장 선점

그는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을 최대 승부처로 설정하고, 생산 거점 확보와 프리미엄 OE(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2019년 체코 자테츠에 넥센타이어의 네 번째 글로벌 생산기지를 준공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단계 증설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생산

능력은 연간 1100만 본으로 확대됐고, 유럽은 넥센타이어 최대 매출 지역으로 부상했다.

유럽 매출은 2014년 3332억원에서 2024년 1조 1347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유럽 매출 비중 역시 2019년 28%에서 2025년 3분기 42%까지 상승했다. 단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이어 생산현장·영업 최전선 거쳐 글로벌화 성공한 ‘실무형 경영자’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타이어 공급 OE시장서 세계 4대 카메이커 납품 타이어 렌탈서비스로 소비패턴 바뀐

넥센타이어는 2016년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사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유럽공장 건설에 앞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함과 동시에 브랜드 밸류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개 카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또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을 출시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을 출시하며 타이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에 적게는 수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했던 타이어 소비 패턴을 렌탈과 구독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넥스트레벨 타이어 렌탈 서비스는 런칭 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며 2025년 3월 누적 렌탈 판매 200만개를 돌파했다.

넥센타이어의 또 다른 성장 축은 프리미엄 OE 시장이다. 2012년 미쓰비시를 시작으로, 2016년 포르쉐 ‘카이엔’ OE



약력

1971년 부산 출생
부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요 경력

1999년 대우리조트증권 입사
2001년 넥센타이어 입사(재경팀)
2009년 넥센타이어 사장
2016년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2019년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

공급 이후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전 세계 30여 개 완성차 업체, 120여 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세계 4대 프리미엄 카메이커 모두에 OE를 공급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전동화 전환에 대한 대응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25년 3월 ‘EV 루트’ 중심으로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구분하지 않는 ‘원 타이어’ 전략을 공식화하며, 전기차 타이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EV 루트는 고출력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SUV까지 차종에 상관없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타이어에 부여되는 넥센타이어 전용 인증 마크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전동화 시대에도 범용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8월 출시한 ‘엔페라 슈프림(EV 루트)’은 국내에서 누적 200만본 이상 판매된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을 기반으로, 고하중·저소음 성능을 강화했다.

◆기술 혁신과 버추얼 R&D 전환

강 부회장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2019년 서울 마곡에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를 설립해 전 세계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지역 맞춤형 및 미래차 전용 타이어 개발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유럽, 미국, 중국에 위치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500여 명의 연구진이

이곳을 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또 AI와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버추얼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실차 기반 시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상 시뮬레이터와 AI 설계 시스템에 연결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성능 예측을 고도화해 시제품 제작 횟수와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타이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탄소배출 절감하는 한편 제품 성능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넥센타이어는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 설계부터 성능 예측, 가상 시뮬레이션, 실차 데이터 축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순환 구조로 연결한 ‘버추얼 브레인 루프’를 구축했다.

버추얼 브레인 루프는 AI와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제품 설계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한 넥센타이어의 차세대 연구개발 체계다.

전기차 구분 없는 ‘원타이어’ 전략 최적의 성능, 범용성까지 다 잡아

‘더넥센유니버시티’ 연구소 설립 SI활용, 차세대 연구개발체계 구축 국내외 스포츠마케팅...인지도↑

◆글로벌 전략적 스포츠마케팅...ESG 경영 박차

강 부회장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국내외 현장을 다니며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 프로야구단 ‘넥센하이어즈’ 후원을 시작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본격화하며,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스포츠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했고, 2015년에는 맨체스터시티(맨시티)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맨시티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후발주자였던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높였다.

넥센타이어와 맨시티는 네 차례에 걸친 파트너십 연장과 프리미어리그 최초 공식 슬리브 파트너 계약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넥센타이어는 유럽을 넘어 북미·중동·동유럽 등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확장해 지역별 맞춤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 넥센타이어와 맨시티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 기념식에서 페란 소리아노 맨시티 CEO(왼쪽)와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강병중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2019년에 열린 체코 자테츠 공장 준공식에서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메트로 한줄뉴스



▲KBL, 올스타전 명단 발표...팀 브라운 vs 팀 코니
▲‘한국계 외야수’ 레프스나يدر, 시애틀로 이적...1년 93억원에 계약 /사진 뉴시스

▲체육공단, 2025년 내부통제 우수사례 표창 수여식 개최
▲송성문 영입한 샌디에이고 단장 “다양한 역할 해줄 것”

▲‘이제는 메이저리거’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
▲일본 축구 간판 골잡이 미나미노,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